

# 어촌 인력난 해소 적극 추진

### 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양식어가 만족도 높아 고용수요 급증 베트남 봉따우시와 MOU 체결 위한 사전 화상 실무협의로 인력유치 나서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노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2024년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어촌계, 한국감생산업연합회, 군산지부 등에 적극 홍보를 펼쳐 작년의 58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30여 명의 계절근로자 고용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또한 기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추천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어가의 고용수요에 비해 계절근로자 모집이 턱없이 부족한 게 파악되면서 군산시는 국외 지자체와 인력교류 MOU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고용여가의 계절근로자 희망

국적의 98% 정도가 베트남인 점을 고려해 지난 2일에는 군산시 우호도시인 베트남 봉따우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상회의는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 실무진과 베트남 봉따우시 노동부 실무진이 함께 했으며, 양측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기반한 업무협약(안)을 공유했다. 여기에 수산분야(김양식업 등) 근로에 적합한 계절근로자 선발 대상 및 세부기준도 논의하면서 인적교류를 위한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지는 의미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향후 베트남 봉따우시의 현지 인력 수출 체계가 마련 되는대로 군산시는

본 협약을 체결하여 수산업 분야에 적합한 어업경력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빠르면 올가을부터 어업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이번 우호도시와의 실무진 협의를 시작으로 주요 국외 어업도시와의 지속적인 인적교류 경로체계를 마련하여 수산업 현장에 필요인력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수요가 해마다 늘어날 것을 감안해 김양식업 현장에 가장 적합한 인력 고용 체계를 마련 인력 모집과 공급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산=이재춘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교양교과목, 주관: 자율전공학부, 교육혁신처 미래교육과)를 지난 8일 오후 2시 제1학생회관 고촌공관에서 박규연 책임교수(음악과) 사회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 ‘지방시대와 청년인재양성’

### 국립군산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초청 토크콘서트

국립군산대는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교양교과목, 주관: 자율전공학부, 교육혁신처 미래교육과)를 지난 8일 오후 2시 제1학생회관 고촌공관에서 박규연 책임교수(음악과) 사회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초청된 명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으로서, ‘지방시대와 청년인재양성’ 주제로 고촌공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성원과 함께 진행되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불균형 해소 방법과 지방소멸 문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시대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지역인재를 양성을 위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방법임을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교과목을 운영하는 박규연 교수는, “오늘 초청된 명사인 우동기 위원장님의 강연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또한, 지방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들려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교육전문가이신 위원장님의 명쾌한 강연은 학생들이 지역인재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비전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달했다.

참가 학생들은 우동기 위원장의 이야기가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주었다고 이야기했다.

/군산=이재춘기자

## ‘미래 교육방향 모색’...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원탁회의

### 학생·학부모·교육 관계자 등 100여명 참여... 정책 제안의 장 마련

익산시가 지역 교육 발전·혁신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9일 익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교육발전특구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익산시 교육발전 방안 및 특구 내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익산시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교육 자원과 기반을 활용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부가 3년간 시범적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공모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했으며, 지난 2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 하반기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 100원 에듀버스, 지역인재전형 확대, 대학 연계 자기주도 학습 캠프, 생애전주기 1인 1개 교육 등을 계획해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백년지대계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올 여름 위생해충 책임진다”... 익산시, 방역 발대식 성료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방역 시작에 앞서 9일 보건소에서 방역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 방역 기동반을 비롯해 읍면동 방역 담당자, 노인일자리 방역근로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올바른 위생해충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매개체 방제방법과 살충제 사용방법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방역장비 사용요령을 비롯한

29개 행정복지센터도 하계방역반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위생해충방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생해충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해도 위생해충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방역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노인일자리 근로자를 통한 특별방역반을 구성하고 2인 1조로 12개 구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9개 행정복지센터도 하계방역반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위생해충방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생해충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해도 위생해충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방역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노인일자리 근로자를 통한 특별방역반을 구성하고 2인 1조로 12개 구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접수

군산시가 오는 5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4년 총사업비 11억5,600만원으로,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에도 진행되어 관내 소상공인 6,848개 업체에 약 12억1,600만원을 지원 경제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 2024년 5월 7일 이전 휴·폐업 △타 시·도로 이전 △유형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13일부터 군산시상공원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군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지적불부합지 해소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군산시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7개 지구 1만288필지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측량,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 토지감정 등 행정적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 군산시는 시의 전체 필지 중 13.5%(인 68개 지구 3만5,499필지)를 지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왔다.

올해는 옥구읍 상평리 172-1번지 일원의 옥구상평지구 1,151필지와 옥구읍 어은리 12번지 일원의 옥구어은지구 169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된다.

/군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대표 관광지서 다양한 문화공연 펼쳐

익산시 대표 관광지에서 시민이 채우는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생활문화와 관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상설공연이 오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설공연은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사장 이명준) 주관으로 진행된다. 시내 권역 중심의 공연문화에서 탈피해 생활문화 저변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5월 11일 국립익산 박물관(미륵사지) △25일 교도소세탁장 △6월 1일 국립익산 박물관(미륵사지) △15일 민경강문화관 △7월 6일 삼세오층 열사에서 진행된다.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은 팬플룻, 해금중주, 실내악, 합창한곡무용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